맛있는 곳이라면 천리길도…

광주·전남 6,700여 미식가들

분식·한식·중식·일식·카페까지

이왕 먹을 거 맛있는 곳에서 …

음식 맛·서비스 평가, 정보 교환

인터넷 카페 '광주 맛집'(http : //cafe.naver.com/bablove)에는 그때 그때 새로운 음식점, 메뉴, 맛을 알려주는 맛에 미친(?) '전령사'들이 6천710명에 달한다. 지난 2004년 결성될 때만 해도 7~8명 정도만 모일 정도로 소박하게 시작된 동호회는 맛깔스런 음식과 분위기 있는 식당 정보에 목말랐던 지역 네티즌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가장 인기있는 맛집 동호회로 급성장했다. 대부분이'아무데나 가서 먹지'를 용납 못하고 '이왕 먹을 것 맛있는 곳에서 먹자'는 생각에서 모인 회원들이다. 20대 초반 대학생부터 50대 이상까지 연령과 직업도 다양하다. 그렇다고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질문 사항을 성의껏 답변하고 회원으로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카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더라도 5번 이상 카페에 출근해야 하고 간단한 글이라도 5번 이상 올리지 않으면 카페 내 웬만한 사진이나 글을 쓸 수도, 볼 수도 없다. 얼마나 착실히 참가하느냐를 따져 '고두쇠 회원'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행강필승'이라는 아이디로 알려진 카페지기 배대승(39·회사원)씨는 "강제성도 없는 모임이고 회칙도 까다로운 편인데,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이라도 여는 날에는 20~30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회원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들 중에는 자유여행가인 문영국씨 등 맛있는 집을 찾아 천리 길도 마다 않고 발품을 팔아 '탐사'해 현지의 제대로 된 먹거리와 음식점, 가볼만한 곳을 발굴하는 회원들도 많다. 그러나 예전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면서 찾아가기 쉽게 됐다.

이 때문에 한식·중식·일식·양식·분식·술집·카페 등 광주·전남지역을 비롯, 전국의 유명한 맛집의 모든 정보가 올라온다.

회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고 평가 글을 올리는 일이다. 하지만 맛집 한 곳의 사진을 수십장 이상 찍어 올리고 음식평을 띄우는 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나마 음식 메뉴판을 촬영하는 것을 이상한 눈초리로 흘겨볼 때에 비하면 요즘은 훨씬 편해졌지만 그 만큼 좋아하고 재미있지 않으면 못한다.

특히 음식 맛 평가글은 회원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서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인터넷에 음식점에 대한 혹평을 금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회원들끼리 저마다 찾아간 곳 가운데 추천하지 않고 싶은 곳은 '아쉬운 집'코너에 올려 정보를 많이 써 제 맛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외면받기 일쑤다.

다른 사람의 '식성'이 담긴 글을 보면서 자신의 '미각'이 담긴 글을 약간의 입담을 섞어가며 쓰고 싶은 고민도 많다.

이 때문에 회원들은 "먹으면서 이건 무슨 재료로 만들었을까, 양념은 무엇을 넣었을까 등을 한 번 더 분석하고, 궁금한 것은 주인에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한다. 되도록 많은 정보를 모아 다른 회원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회원들 개개인이 돌아다니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 모임뿐 아니라, 수시로 열리는 '번개' 모임을 통해 맛집을 탐사하고 평가한다.

다음날 올리는 후기(後記)에 음식사진, 분위기·맛·서비스 등 음식평을 포함해 올려 네티즌들에게 기본 정보로 공유토록 하는 것. 이들에게 먹는 것은 끼니만 때우는 것이 아니다.

한 번 해 본 사람이 할 줄 안다고 이곳저곳을 두루 찾아 다니며 많이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기 마련이다. 이들과 함께 가면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일까. 카페에는 "송년회를 하려는데 좋은 곳 알려주세요, 아이들 때문에 놀이방은 꼭 있어야돼요', '다른 지역에서 손님이 왔는데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좀 추천 해주세요', '광주시내 야경 괜찮은 술집 또는 밥집 어디가 괜찮을까요?', '떡볶이 잘하는 곳도 아시나요?'등 시시콜콜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최근에는 송년 모임과 해맞이 등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맛깔스런 음식을 접할 수 있으면서 인테리어, 분위기까지 챙겨보겠다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많다.

또 '내가 생각하는 동·서·남·광산구 최고의 맛집', '가격대비 최고의 음식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점', '다른 지역에서 온 손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맛집'등을 회원간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음식점 홍보 코너에는 음식점,레스토랑 등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과 이벤트 등의 행사일정 등이 빼곡히 올라온다.

이정도되면 맛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회원인 강민중(36·자영업)씨는 "맛있는 집을 찾다보니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인터넷에서는 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사회봉사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광주맛집'동호회는 모임이 잦아지면서 각 회원들이 낸 비용 가운데 쓰고 남은 회비를 모아 불카페지기 배대승씨는 "정기 모임 때 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광주맛집 동호회